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익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창4장 1-10절은 인간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했으며,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업과 목축을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만이 열납되었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고 얼굴빛이 변하여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시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차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생에게 그 화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아벨을 살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시기과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가인은 동생의 성공을 축복하기보다 질투와 분노로 대처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는 대신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흐와 그의 동생 태우의 관계처럼, 진정한 힘은 타인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때, 더 큰 혼란과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생애가 되기를 기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 오전8시 2부: 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	다 같 이
경배찬송	----- 1장 -----	다 같 이
성서교독	----- 87번 계21장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95장 -----	다 같 이
기 도	-----	1부 노응상집사 2부 이상열장로
성경봉독	----- 골로새서1:3-6 -----	인 도 자
찬 양	----- 기쁨의 찬양 -----	성 가 대
설 교	----- 하늘에 쌓아 둔 소망 -----	박근상목사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488장 -----	다 같 이
헌금봉헌	----- 헌금함예 -----	다 같 이
헌금기도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 기쁨으로 찬양 -----	다 같 이
축복기도	-----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1:5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박종례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에베소서교회론(62)6:14-의의 호심경(護心鏡) 3

찬송/ 254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의의 호심경(護心鏡)’(3)
-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되면 교회가 된다’
- 9월-11월까지 중보기도실 사역자를 신청받습니다.
게시판을 읽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담임목사 **요한계시록 강해 ‘비밀’**이 9월 초에 발간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새신자용으로 활용됩니다.
출판비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 9월 8일(월)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오후8시-10시

■ ■ 말은 청지기 ■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종기 이길연 2층 이화옥 송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노응상 오종수	류수현/자녀감사
다음주	1층 오종수 김실근 2층 이화옥 송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종기 김일남	오태연 박은혜/결혼감사

청소담당: 2,3층 이번주(08,29) 5구역(박종례)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9,05) 6구역(김춘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창 1장 28절 제 목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활동 1.8월 암송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2.오늘 활동은 가정지킴이 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이효정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창 1장 28절 제 목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1.8월 암송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2.전도할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3.9월부터 새소식만 시작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김다연 자매 기도자 -백가는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4장 24-26절 제 목 -생명을 살리는 언약	1.8월 암송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19절입니다. 2.8월 예배인도는 김다연 자매, ppt는 김형섭 형제, 8/31(주) 대표기도는 백성준 형제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강찬식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이사야 6장 1~8절 제 목 -주여, 나를 보내소서	1.오늘은 본문 말씀 주제로 소그룹 친목시간을 갖습니다. 2.8/31(주) 대표기도는 김금모 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기독교 기본생활

소그룹이 되면 교회가 된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지났는데, 어떤 교회는 이전보다 더 약해진 반면,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가족들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소그룹'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라는 공간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기보다, 좋은 설교나 찬양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가 끝난 교회는 텅빈 공연장과 같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려면 대예배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그물만 던져서는 더 이상 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촘촘하고 세밀한 '작은 그물', 바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왜 이토록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첫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동시에,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교제'라는 이중 구조는 초대교회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심리적, 정서적 관점**입니다. 사람은 큰 위기를 겪을 때,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공간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모인 안전한 작은 모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소규모 그룹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반응해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정기적으로 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도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해주는 경험은 우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느슨한 연결'은 넘쳐나지만, 정작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회 소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전도의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넷째, **선교와 확장** 관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관계'를 통해 '소그룹'에 먼저 참여해 그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한 후 '예배'로 나아오면 잘 정착을 하고 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조직적 관점입니다. 한두 명의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은 목양의 부담을 리더들이 분담하고 교인 전체가 목회적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그룹을 단어로 표현해봅니다.

'활성화된' 소그룹인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 지표를 **R.E.L.A.T.E.** 라는 여섯 글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R (Regularity - 정기성):** 얼마나 꾸준히 모이는가? 건강한 소그룹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사실 우리교회에서 추구하는 한달의 한번 소그룹은 정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안에서 소그룹이 모여지고 한번은 성도들의 현장에서 모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 **E (Engagement - 참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가? 리더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70% 이상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구역 예배형식은 공동 예배의 축소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자가 예배인도자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는 것 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살았는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L (Life Change - 삶의 변화):** 나눔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머리를 짜내고 실천한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A (Apprenticeship - 재생산):**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가? 단순히 관찰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 리더로 성장하고, 새로운 그룹을 파송하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반드시 영적으로 양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 **T (Touch Points - 주간 접촉):** 교회나 특정한 장소에서 모인 다음에 주중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톡방 등을 통해 한두 번이라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기도해주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 **E (External Blessing - 외향성):** 우리 그룹만의 모임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가? 분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그룹이 함께 다른 이들을 섬기거나, 전도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일어난 영적인 시너지가 밖으로 표 현되지 않으면 교인 물이 었다가 썩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되는

소그룹과 활성화된 소그룹의 차이

비활성화된 소그룹은 리더 혼자 말하고, 주중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으며, 삶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어색해하고, 1년이 지나도 새로운 리더 한 명 세우지 못합니다. 반면, **활성화된 소그룹**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나눈 삶의 적용을 서로 확인하며, 기도제목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생명력은 중앙이 아닌, 곳곳에 분산된 '건강한 연결 조직'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소그룹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양과 제자도, 그리고 선교가 교차하는 교회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셋째, 소그룹의 활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진단과 구조 설계, 훈련과 재 생산의 사이클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성껏 세우는 한 명의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목회자의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각 소그룹이 '깊이 있는 12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나눔식 소그룹 에스겔 22:17~31(8월 26일 본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찬양하기 *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경배와 찬양)

Focus : 개인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22:17~3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벨론이 세운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과의 동맹을 시도하며 반(反)바벨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유다를 더 큰 혼란에 빠트리는 계기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부정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했고, 조공 부담이 커진 백성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명과 책임을 저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거짓으로 백성을 현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거룩함이 사라진 자리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심판받는 원인이 됩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이스라엘 족속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18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내가 마음과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해지길 원하십니까?
요?

2.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위해 쏟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30~31절)

적용과 나눔

사회와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각자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힘쓸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인생은 불순물처럼 무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죄악을 제거하고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진노의 불로 연단하십니다. 금광석은 용광로에서 제련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결함과 순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의 길을 따르며 세상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토설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손가락 질하지 않고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성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존경과 신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도록 기도합니다.

2.광, 하와이 등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아 원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181쪽 '땅끝에서 온 편지'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주님의 - 시간에 - 그의 뜻이 이뤄져
리 기다려 - 하루 하루 살동 안 주님
인도하시 니 주 뜻 이룰 때까 지 기다려 -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